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론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KIRA NEWS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협회에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
정회원	·입회비 : 300만 원(입회 시 1회) ·월정회비 : 3만 원(매월) ·시·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입회비 : 50만 원(가입시 1회) ·연회비 : 6만 원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 남	(041)338-4088	(041)338-4188
서 울	(02)581-5715~8	(02)523-2284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세 종	(044)862-6336	(044)862-6226	전 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경 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인 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광 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세 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축의 거장, 그들의 발언

Masters of the modern architecture,
and their words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대한민국에서 건축의 사회적 위상은 어떨까? 1960년대 협회지를 찾아보면 당시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던 듯하다.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 중후반에 기성 건축사들이나 대학의 교수님들께도 수도 없이 들었던 자조 섞인 질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기성세대가 되고, 나도 어느새 뒷세대보다 아랫세대가 많은 건축동네에 서 있다. 그리고 편집장으로서 매달 한 번씩 쓰는 글에도 이런 의미와 주제가 여러 번 다뤄졌다.

과거의 여러 자료를 곰곰이 보다가 새삼 느낀 것이 있다. 우리 건축계 인사들이 사회적 발언을 너무 안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몇몇 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종 언론을 통해 발언해왔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신문이나 다큐 등에서 간간히 발언을 노출해왔다. 하지만 보다 조직적이고 규모 있게 발언한 적이 거의 없다. 협회의 성명도 대체로 우리 생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했지, 사회·정치적 어젠다(agenda)나 미래 비전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건축의 역사를 보면, 서구 사회의 건축계에서 발언한 거시적이고 확장된 내용의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때로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위험한 경우도 있었고, 사회의 균형을 언급한 것도 있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시도들로 인해 그 사회에서 건축의 존재가, 의미가, 가치가 공유되고 인식된다는 점이다.

고전건축에서 현대건축으로 사고와 건축의 틀 자체를 바꿔버린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의 건축 거장들만 해도 그렇다. 아직까지

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르 꼬르뷔지에는 유명한 사회주의 이념가로 건

축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주장했다. 그의 수많은 건축적 논리와 주장, 결과들은 그런 정치철학적 성과물이다. 그가 이념적 이유로 미국을 방문하지 못했다는 점은 유명한 사실이다. 또 오스카 니마이어는 어떤가? 동의하거나 말거나 그의 정치 철학적 주장과 사회적 발언들은 브라질 독재로부터 망명의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다. 바우하우스의 발터 그로피우스 역시 마찬가지다. 히틀러의 파시즘은 그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망명 아닌 망명으로 미국 현대 건축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흐름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크상의 수상작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지역주의적 노력을 한 중국 왕슈의 수상부터 조금씩 관점을 이동 시켜온 프리츠크상은 최근 사회적 시각에 더 주목하고 있다. 알렉산드로 아라베나의 사회 참여적·발언적 작가주의에 주목하고, 역사와 지역에 침착한 RCR 건축이 수상했다. 최근에는 일종의 재생자원에 주목한 지역 건축하는 프랑스의 안 라카롱, 장필리프 바살이 공동 수상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건축은 어떤가?

왜 국내 건축상들은 권위를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상이 아닌 건축을 하는 이들,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 교육자들을 왜 주목하지 않는가? 왜 건축을 주제로 하는 건축 언론인들은 사회의 화자로 주목받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미래를 준비하는, 공감을 얻을 만한 주제와 이슈를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언하지 않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면서 술집에서 한두 명이 뉘드리하듯 하지 마라!

좀 더 크게, 좀 더 멀리, 좀 더 확실하게 발언해도 된다. 안 다친다.

발언하자, 건축 인싸(insider)들이여.

